

그대 없이 다시 오월입니다

5·18 민주항쟁 29주기 추모시 - 전 숙 시인

오월의 눈물이며, 서늘한 뜨거움이며
 그대 없이 다시 오월입니다
 슬픔이 다하고 눈물도 말라
 꽃을 돌이키려던 향기마저 스러져
 우리의 사랑이 꽃잎처럼 이슬던 날
 이름 없는 풀꽃들과 도란도란 노닐던
 푸른 나비는 우두커니가 되고
 우리들 가슴에 서럽게 굳어버린
 무등은 이제 하늘 너머 영원입니다
 강물이 얼마나 흘러야, 뜨겁게
 고동치는 광주의 혈맥이 서늘해지겠습니까
 흑암을 달여온 저 별빛 뿔소독 눈물겹듯
 아픔 없는 꽃이 어찌 아름답겠는지요
 슬픔 없는 사랑이 어찌 추억이겠는지요
 금남로에 흩뿌려진 꽃잎 붉어 서럽던 날
 우리의 사랑은 못다 핀 추억으로
 흘러 흘러 천년을 흐르면
 짙어진 오월의 분수대도
 도담도담 불어오는 어머니의 젖샘처럼
 사랑의 젖줄기 달콤하게 솟구칠는지요
 어느덧 지푸른 꽃진 상처에도
 찔레꽃 붉은 열매 아리따르게 여물어
 러기진 작은 새들에게
 라오르는 한생을 송두리째 내미는 영실처럼
 꽃과 꽃 사이 눈물을 사르어
 민주의 꽃불을 밝힌
 무명초들의 열매가 되어
 우리의 사랑도 그때 그 자리에
 하늘 사무치게 빛나기를
 그대 없이 다시 오월입니다.

<2009년 5월 17일 옛 전남도청 별관 추모제에서>



오열하는 오월 어머니

17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주관으로 열린 추모제에서 한 유족이 상어를 붙잡고 오열하고 있다. 추모제가 망월역역이나 국립5·18민주묘지가 아닌 옛 전남도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80년 그날처럼...뜨거운 금남로

■ 5·18 29주년 행사 이모저모

○“5·18 민주항쟁 29주년 기념행사” 전야제가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흐린 날씨 속에 차분하게 진행. 이날 전야제엔 시민 5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녀, 그리고 5월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풍물패 공연과 시·도민 한마음 행사 등이 차례로 진행. 특히 5·18 민주항쟁을 주제로 한 살풀이 공연을 펼쳐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환호.

살풀이 공연 등 환호

시민 박영우(31)씨는 “가족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았는데, 5월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5월 정신이 광주는 물론 민주·인권을 위협받고 있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설명.

○17일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진 ‘5월 광주항쟁정신 계승대회’ 행사장

에는 5천여 명의 시민들로 인산인해. “29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5·18과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주제 아래 ‘윤리적 생산자와 소비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등록금 인하 실천’ 등 정치·사회·교육·경제문제 등을 담은 부스 40개를 설치. 특히 ‘촛불과 폐인팅’으로 하나 되는 ‘5·18’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돼 가족단위 참가자들에게 큰 인기.

한편 이날 대회에서 진보연대 등 각분야 참가 단체들은 “현정부의 반민생·반민주·반통일에 맞서 자주·민주·통일을 이룩하자”라는 제목의 ‘5월 선언문’을 발표.

○5·18 민주항쟁 29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추모 열기가 절정. 이날 5·18 민주묘지를 찾은 정치인·대학생·시민·외국인 등 추모객 수는 3만여 명으로 지

난해 같은 기간 2만7천 명에 비해 11.1%(3천명) 증가.

○“5·18 민주항쟁 29주년 기념행사” 추모제가 이날 5월 당시 결사항전을 펼친 옛 전남도청 별관 앞에서 처음으로 개최.

도청 별관 쓸쓸한 추모제

하지만 국회의장, 정치인, 단체장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던 이전 추모제와는 달리 유족, 5월 관련단체 등만 참여한 쓸쓸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제가 진행.

5·18 민주항쟁 29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안성례 위원장은 “추모제는 영령들이 잠든 묘지에서 드러야 마땅하지만 이와 같이 허술한 도청 바닥에서 제를 드리게 되는 가슴 아픈 현실과 처지를 굵어 응서하소서”라며 비통한 심정을 표현.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7분 해질 19시 32분 달돋이 01시 25분 달질 13시 11분

참배하기 좋은 날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11/26°C
목포	맑음	12/22°C
여수	맑음	8/27°C
완도	맑음	13/25°C
구례	맑음	9/27°C
해남	맑음	10/25°C
장흥	맑음	10/26°C
고흥	맑음	11/26°C
순천	맑음	12/26°C
영광	맑음	10/23°C
진도	맑음	11/25°C
전주	맑음	9/24°C
남원	맑음	8/25°C
옥산도	맑음	13/19°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서	0.5~1.0m	목포 08:14	01:04
연안	서~서	1.0~1.5m	20:43	14:20
남해 서부 앞바다	서~서	0.5~1.5m	여수 03:38	10:19
연안	북서~북	0.5~2.0m	16:21	22:06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민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9(화)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날씨						
최저/최고	13/28	14/28	14/24	15/28	15/26	15/26

대구대 인권연대 '나비' 11명 휠체어 참배

“5월 영령들 송고한 뜻 기리려 왔죠”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5월 영령들의 송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난 16일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민주묘지. 휠체어에 몸을 실은 장애인 3명 등 대구지역 대학생 ‘인권 전도사’ 11명이 몸을 비웃을 걸친 채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대구대학교 장애인 인권행동연대인 ‘나비’의 김선득(28·전산공학과) 회장 등 11명은 이날 오후 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을 쓰는 것으로 1박 2일 일정을 시작했다. 이들은 “5·18 민주항쟁”을 다룬 영상물 등을 토대로 사 전 학습을 한 뒤 이날 광주를 찾았다.

추모관에서 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13살 소녀의 몸에 총

알 자국이 16발이나 있었다는 내용을 접한 학생들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이어 옛 전남도청을 방문한 이들은 1층에 마련된 ‘벽을 문으로’라는 5월 항쟁 관련 전시전을 관람하고, 직접 판화를 찍기도 하는 등 남다른 호기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들은 옛 도청에 세워진 검은 천을 보고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는 “옛 도청별관 철거 문제로 광주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봤다”며 “광주 시민들이 80년 당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선 의연함을 되살려 도청 문제도 슬기롭게 잘 대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1-227-9940 (광주광역시 북구 동부대우로1길 11-11)
 송원점 061-752-9940 (광주광역시 서구 송원동 1-1)
 옥포점 061-262-9260 (광주광역시 남구 옥포동 1-1)
 옥정점 061-227-9970 (광주광역시 북구 옥정동 1-1)
 덕산점 061-851-2422 (광주광역시 북구 덕산동 1-1)

(주)제주무궁화관광

포이미 제주관광유망사업 (여행자보험 무보험여행서비스)

제주도 여행 3인 89,000원

기차여행, 호텔, 항공권 - 1박 3일 제주여행. 1인 1박 3일 1인 1박 3일 1인 1박 3일 99,000원
 1인 1박 3일 1인 1박 3일 1인 1박 3일 1인 1박 3일 1인 1박 3일

특급 호텔	특급 호텔	특급 호텔
09,000원	05,000원	13,000원

제주도 여행 3인 89,000원

061-744-1109 www.jejumuhwa.com

6월 5일 OPEN

아이엘리시아

최고의 피부관리, 가장 편안한 분위기, 최고의 서비스

061-877-8199